추대 → 경선 반복 숨 가빴던 100일

■ 기획/ 제3대 총무원장 선거, 회고와 전망 ① 자승스님 연임이 갖는 의미

'종단안정·지속발전' 종도 염원 담겨

자승스님이 제3대 조계종 총무원장 출마선언을 한 것은 지난 9월 16이다. 그 사이 자승스님이 출마를 두고 설왕설왕가 끓어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백양사 사건 이후 약해가 거듭되면서 스님의 출마에 측은 더욱 조심스러움 구매에 없었다.

종단이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접어든 것은 지난 7월11일 불교공장 집회으로 불 수 있다. 생 원장원의 무량정 무슨속 중앙종회의원 47명이 참여해 사장 회대 규모의 종회 모임이 결성돼 총무원장 후보자를 추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때만 한 달 뒤 생 무량정가 불교공장 탈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자승스님의 명확한 거취표명을 요구했던 무량정는 무자격 보비정이 함께 3자연대를 구성해 대홍사 원주 보선스님을 제가 총무원장 후보로 추대했다. 무은의여가 던 추대방식은 갈선으로 선회했다.

재가단체와 전국선원수좌회는 자승스님의 연임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전국선원수좌회는 조계사에 목연과 단식정진을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봉암사 수좌 혜명스님과 자승, 법등, 도법, 수경스님 등 다섯 명이 전격 회동을 갖고 총무원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합의하면서, 사그라졌던 추대갈등이 가가 전거원회로, 해지한 불교공장은 3자연대가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전제를 두고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추천위 구성은 무산됐다.

그리고 10월16일 불교공장은 31대 집행부의 성과를 이어갈 차기 총무원장 후보로 현 총무원장인 자승스님을 후보로 추대했다. 이들 수락한 자승스님은 연재 출마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사과하고 종단을 반석위에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선거에는 자승, 보선, 대주, 왕주, 혜총스님이 출사표를 던졌다. 자승, 보선스님이 유력한 당선자로 평가되는 가운데 선거 열기는 원점 으거리로 되돌아 가 후보자간 선거법 위반 제소가 이어졌고, 승적과 수계 등 이력에 대한 문제제기까지 나오면서 선거는 과열로 치달았다. 종단선거관리위원회는 논란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종앙선관위가 마피사 선거인단에 대해 투표권 없음을 결정해 마피사 스님들이 반발로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일부 후보에 대한 총무부선 신청도를 결과가 뒤집히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자 상사를 진행과지 않았다.

결국 마피사 선거인단을 제외한 31명이 10일 투표에 참가, 17표를 획득한 자승스님이 3기 총무원장으로 당선됐다.

어연경 기자 eonaki@buligo.com

기호 번호 자승스님(오른쪽)과 기호 2번 보선스님은 10일 오후1시 선의의 경쟁을 마치며 함께 밝은 표정으로 투표에 임했다. 김형주 기자

제3대 총무원장으로 현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선출됐다는 것은 곧 33대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변화와 개혁들이 앞으로 4년간 지속되을 의미한다. 33대 때 제시했던 다양한 종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종단과 중앙종무기관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승려노후복지제도 시행
주지인사 고과제 도입

사찰 토지처분금
종단 목적사업 활용 등
파종 남은 '결실' 바탕

지상과 체신 결사
교구활성화 등
과제 완수에 대한 '기대'

스님은 33대 총무원장 취임 초기부터 '불교중흥의 씨앗이 되겠다'는 뜻을 자주내왔다. "단기간의 성과에 급급하기 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계획 하에 한국불교 중흥의 기반을 구축하는 씨앗을 뿌리는 마음과 자세로 종단의 역사무오과제를 추진하겠다"는 뜻이기도 했다.

실제로 33대 집행부는 파종 수준이 아니라 많은 결실을 수확했다. 종단 최초로 승려노후복지제도를 시행했고, 직원교구제 주지인사고과제를 도입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했다. 또 사찰 토지처분금을 신도시 포교 등 종단 목적사업으로만 쓸 수 있도록 종헌을 제정했고, 대법원 등 개세주를 통해 종단 순이 없이 사찰의 토지매매를 할 수 없도록 해 재산 반실을 방지하는 근간을 마련했다.

물론 미완에 그친 종책도 있다. 자성과 체신결사나 교구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중앙종무기관의 효율적 운영이나 수도권 도시포교, 젊은 세대 포교 등은 아쉽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오는 10월31일 34대 총무원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하는 자승스님은 지난 33대 때 아쉬움으로 남았던 과제들을 해결하겠다고 서원한 만큼 미완의 종책들도 실효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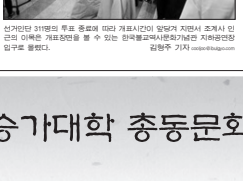
특히 체신과 결사부분의 큰 변화가 예상되고, 대사법의제와 종단결 신의 두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과 함께 범불교적 행동연대인 등을 통해 외연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난 임기 동안 자성과 체신결사는 대중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다은 것이다. 생명평화순례준기, 4대강 유역 답사로 생명결사를, 저소득층 아동 돕는 광연행기를 통해 나눔결사를, 불교문화재를 탐방하며 문화결사에 동참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을 제안해 봤지는 물론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는 결사가 될 것이다. 종단 결단은 박병의 승부가 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결과는 50표(득표율 16.1%)라는 압도적 차이로 기호1번 자승스님이 승리했다. 지난 1994년 종단 개혁 후 실시된 총 7대째의 총무원장 선거 가운데 2000년 10월 현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사실상 추대된 33대 총무원장 선거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득표율이 57.6%를 차지하여 재임에 성공했다.

1994년 11월 28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월주스님이 득표율 53.2%(2위와 22표 차로 당선되크게 이어 1998년 12월 29대 총무원장 선거는 고산스님이 53.2%(32표 차), 1999년 11월 30대 총무원장 선거는 정대스님이 52.2%(32표 차)의 득표율을 각각 차지하여 당선됐다. 이어 2003년 2월 31대 선거는 법등스님이 55.8%(28표 차), 2005년 10월 32대 선거는 지관스님이 51.6%(17표 차), 법륜 주대 정해룡 원 2009년 10월 33대 선거는 자승스님이 90.6%(286표 차)의 득표율로 각각 당선됐다.

이 가운데 32표라는 큰 차이가 난 29대 총무원장 선거는 정화개혁의 의를 얻단해야 한다는 종감대가 형성되면서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지관스님이 정 권스님을 상대로 19표 차이로 힘겹게 승리한 32대 총무원장 선거가 가장 박빙의 승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이번 제3대 총무원장 후보 기호 4번 장주스님이 30대, 32대 총무원장 선거에 이어 3번째로 출마했으로 가장 많이 출사표를 던진 후보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박선혜 기자 parkseohye@buligo.com

■ 역대 총무원장 선거 비교



선거인단 31명의 투표 종료에 따라 개표시간이 임박가 지면서 조계사 인근의 이북은 개표장면을 볼 수 있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 입구로 몰렸다. 김형주 기자 ciolpo@buligo.com

33대 90.6% 득표율로 당선
이어 57.6%로 재선 '성공'
자승스님, 94표단계에 이후
최고 · 두 번째 득표율 기록

▶ 역대 총무원장 득표율

28대 월주스님	53.2%
29대 고산스님	53.2%
30대 정대스님	52.2%
31대 법등스님	55.8%
32대 지관스님	51.6%
33대 자승스님	90.6%
34대 자승스님	57.6%

'최초' '최고' 새 역사 기록했다

제34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현직 총무원장 스님이 연임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34대 총무원장 선거에 당선된 자승스님은 앞다시피 2000년 10월 33대 총무원장 선거에 당선돼 4년간 임기를 수행한 바 있다.

이번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서 자승스님은 1962년 통합종단 출범 이후 총무원장 후보로 추대된 스님이 3번째, 그간 종산스님(1981, 9대), 영담스님(1991, 11대), 월담스님(6대, 7대), 석주스님(6, 15, 23대), 월주스님(17, 28대), 서의현 원장(25, 26대) 등 6명이 총무원장을 2차례 역임했는 데, 특히 석주스님은 총무원장을 3번 지낸 유일한 인물이다. 연임은 정당스님과 서의현 원장에 이어 자승스님이 3번째다. 이 가운데 4년 임기를 모두 채우고 연임한 총무원장은 서의현 원장에 이어 자승스님이 2번째다.

통합종단 출범 이후 조계종 총무원장은 33번 바뀌었다. 평균 임기는 1.55년. 4년의 임기를 끝까지 마친 스님도 지관스님, 자승스님, 서의현 원장 등 3명에 불과하다. 취임한지 한 달도 안 돼 물러난 경우도 있다. 1994년 종단개혁으로 종단이 안정되면서 총무원장의 위상도 높아졌다. 종단개혁 이후로 마지면 재임 및 연임에 성공한 스님은 자승스님이 최초다.

장성일 기자 kimill@buligo.com

해인사승가대학 총동문회 정기총회 개최

귀의삼보 하옵고,

수행과 대중포교의 현장에서 오늘도 쉼 없이 정진하고 계시는 해인동문 스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다가오는 10월 29일(화) 오후 1시 합청 해인사에서 불기2557(201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오니,
총무다방 하시더라도 모든 선후배 스님께서는 꼭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총회
일 시 | 불기2557(2013)년 **10월 29일(화)** 오후 1시
장 소 | 합천 해인사 관음전

상임위원회
일 시 | 불기2557(2013)년 **10월 29일(화)** 오전 10시
장 소 | 합천 해인사 청화당
추석 기 회향 스님과 제16대 상임위원 스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2557(2013)년 10월
해인사승가대학 총동문회장 정 우 합장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 1319호 해인사승가대학 총동문회
전화 02)720-8113 전송 02)738-8113